

□ 시리즈 '문화산업, 이대로 멈춰서는 안된다' - (3) IMF시대의 효율적인 문화생활(完)



“최소비용으로 문화 향유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 필요”

IMF 이후 사람들은 허리띠 졸라매는데 여념이 없다. 학생들은 용돈에서 가장 먼저 '문화체험비'를 줄이고, 국가적으로도 문화부분은 근래들어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이에 우리신문사는 '문화산업, 이대로 멈춰서는 안된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IMF시대의 효율적인 문화생활 방법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 글 쓰는 순서 -

- (1)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 (2) IMF속의 문화산업 극복방안
- (3) IMF시대 효율적인 문화생활(完)

“IMF가 뭘지... IMF 때문에 빈둥거리는 시간이 많아졌어.”

“아! 오늘 영화나 보러 갈까?”, “글쎄 자금이 여의치가 않아서...”

요즘 학생들의 이런 대화속에서 과거와는 달랐다. 경제생활의 단편을 엿볼 수 있다. 과거 돈보다는 시간에 구애를 받아 문화생활의 폭이 좁아졌지만 지금은 반대의 경우가 돼버렸다. 이는 IMF의 매서운 바람이 학생들의 지갑을 더욱 가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업이 끝난 후 교문을 나서 조금만 움직여도 돈, 돈, 돈이다. IMF시대를 겪으면서 공립(?) 생활을 하다 보니 더 더욱 그렇다. 가정의 경제상황도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도 한 몫을 한다.

이렇듯 학생들의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줄어드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문화체험비'일

수 밖에 없다.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있어 시간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절대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이중 경제적 부담의 가중은 실제적인 문화체험의 장애물로 인식되기 쉽다. 특히 요즘 같은 경제한파에서는 일주일이나 한 달 용돈을 가지고는 차비와 점심값 대기도 빠듯하다. 과거 자주 보던 영화나 연극도 이런 NO! 듣고 싶은 음악을 사려고 레코드 샅을 가보지만 테이프나 CD 앞에 망설이기 일쑤다. 실질적인 부분으로 몇가지 예를 찾아보면 영화

이같은 현상은 개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각 문화단체들은 근래들어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고있다. 우선 IMF여파로 올 한해 문화예술에 산이 크게 감축됐고, 이와 관련해 문화산업도 크게 위축되어 있다. 경제·문화 대통령임을 자부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와 관광산업을 21세기 유망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선거공약이나 취임식에서 말했던 문화관련 정책들이 IMF한파로 가려진 것은 너무 아쉽다. 이렇듯 문화

하지만 IMF한파라고 해서 문화생활에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 추위로 눈을 돌려 잘만 찾아보면 적은 비용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몇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는 문화생활잡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여기시간을 즐겁고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이나 PC통신 역시 방대한 자료로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대학로나 종로 등에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장소가 많이 있다. 우선 대학로 중심에 있는 '티켓박스'에 가면 일반적인 관람 비용보다 저렴하게 연극을 볼 수 있다. 만약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자금'이 없다면 굳이 영화관에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시사회를 통해 미리 영화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부분, 미술, 음악, 박물관 등에도 잘 활용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에게 또다른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몇 가지 예를 통해 찾아봤듯이 IMF는 또다른 문화생활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준다. 아무런 창의력 없이 과거 외형상의 거품만을 내세운다면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IMF한파로 인해 학생들의 문화생활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모든 문화부분의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학생들 역시 앞의 몇 가지 예처럼 최소한의 소비로 최대한의 문화생활 향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제가 있어야 한다. <김동혁 기자>

IMF라 해서 문화생활에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알뜰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대학로의 티켓박스나 영화시사회, 인터넷이나 PC통신의 방대한 자료 역시 얌전한 대학생의 지갑에도 움을 줄 수 있다

한 편을 보는데 드는 비용은 6천원, 연극은 1~2만원 정도. 그리고 음악에 이르면 5천원, CD는 1만원선. 또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당구장의 1시간 비용은 약 7천원. 연주회나 갤러리의 관람료는 이보다 더욱 비싸 엄두도 내지 못한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당연히 학생들은 이러한 몇가지 문화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선택지갑에서 돈을 꺼내기를 꺼려할 수 밖에 없다. IMF 시대에는 문화 체험에 관한 한 무조건 절약해 돈을 아껴보자는 생각이 학생들 사이에선 지배적이다.

□ '98 사진영상의 해 시리즈 - (3) 앞으로의 개선·발전 방향(完)

‘올해의 문화예술’, 포어만으로 안된다

- 글 쓰는 순서 -

1. 사업진행 방향
2. 현황 및 문제점
3. 앞으로의 개선·발전 방향(完)

안 규 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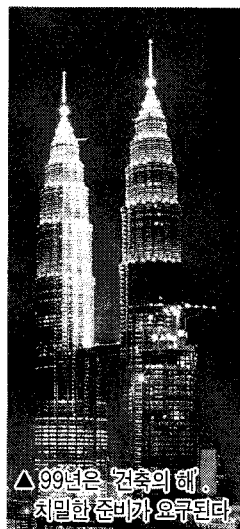
지금쯤 없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세대는 고등학교 때까지 시도 때도 없이 가슴에 리본을 달고 다녔다. 불조심 강조기간, 저축주간, 독서주간 등등의 글귀나 포어를 적은 이 천조각은 마치 교복의 일부분과도 같이 늘상 붙어다녔고 실제로 복장검사에서도 주요항목이었다. 대체 그 리본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많은 불조심과 독서를 했을까?

문학의 해, 사진영상의 해 하는 식의 ‘올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안에서 나는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예술계에 속해 있는 한사람으로서 물론, 정부가 이처럼 예술의 각 분야를 두루 배려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달 생각은 전혀 없다.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와 달리 예술 분야 대부분이 보통사람들에게 자신과 무관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천이 안타깝게도 원래의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올해의’를 위해 기획되는 행사를 대부분이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치적사업의 성격에 띄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나는 무엇보다도 이 행사들이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지 못한 채 늘 급하게 기획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내년이 ‘건축의 해’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나는 바로 얼마전에 신문에서 읽었다. 5월에 와서야 내년의 사업이 정해지는 것이다. 당연히 아무 준비가 없었을 건축계는 앞으로

6개월 뒤부터 뭔가 의미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또 국가적 차원에 걸맞는 수준의 행사를 1년 동안 줄줄이 펼쳐놓아야 할 터인데, 지금 당장 조직위를 구성하고 그 준비작업들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다른 분야들이 그간에 어떻게 행사를 치렀는지를 보면, 이것은 꽤한 격정이 아니다. 실제로 나는 ‘문학의 해’가 절반 넘게 지나간 한여름에, 2,3개월 뒤에 우리 문학의 대표작품들을 주제로 야외 조각전을 기획하고 있다며 자문을 구해 온 행사관계자의 전화를 받고 심소를 급치 못했던 적이 있다. 두어 달 사이에 무슨 수로 이런 작품을 새로 만들어낸 말인가? 또 그렇게 급조된 작품들로 꾸민 전



시가 얼마나 질적으로 평가받는 전지가 되겠는가? 다 그렇지는 않다 해도,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엮어진 행사들 앞에서 일반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정작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조차 냉정한 시선을 보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화랑 수준의 소규모 전시가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미술관급 전시는 적어도 1년, 보통은 2년 정도 준비기간을 잡는다. 전시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일을 하는 경우에 그렇다.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올해의’ 조직위원회가 이런 수준의 전시회를 기획하기에는 우선 절대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이런 일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적어도 5년 단위로 해당분야들을 지정해두고 각 분야의 대표기구와 단체를 통해 세부행사를 미리 기획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 예산을 들여서 모처럼 마련되는 문화예술 행사들이 과거 우리가 달고 다녔던 리본처럼 공허한 포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쉬운 개선책이다.

문화 단 신

노래여울 제 16회 정기공연 오는 5일 서울캠퍼스 민중가요 동아리 '노래여울'이 열여섯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숨겨진 노래와 창작곡으로 캠퍼스의 새로운 가요문화를 선도하는 노래여울의 이번 공연은 1,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장소는 복지회관 지하 공연장,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다.

새벽 '98정기공연 수원캠퍼스 자연과학대학 노래패 '새벽'이 오는 2일 '98정기공연을 갖는다. 1,2부로 나뉘어 진행될 이번 공연은 '새벽,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란 주제로 통일 혁신을 담은 민중가요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장소는 학생회관 2층 소극장이며, 시간은 오후 6시이다.

손에 잡히는 외국어

여름 방학 최고의 선물
수강료 대폭 인하

- ▶ 개설기간: 1998년 7월 1일 ~ 8월 28일(8주간)
- ▶ 등록기간: 1998년 6월 15일부터 선착순 접수 마감
- ▶ 접수처: 국제교육원 1층 교학부 ☎02)961-0081, 961-0082
- ※ 학계휴가: 7월 27일 ~ 7월 31일

과목	강의시간	강의요일	강사	수강료
초급(A)	08:00~08:50	월~금	Native Speaker	12만원
초급(B)	09:00~09:50	월~금		
초급(C)	17:00~17:50	월~금		
초급(D)	18:00~18:50	월~금		
중급(A)	08:00~08:50	월~금		
중급(B)	09:00~09:50	월~금	Native Speaker	8만원
중급(C)	17:00~17:50	월~금		
중급(D)	18:00~18:50	월~금		
고급(A)	08:00~08:50	월~금		
고급(B)	18:00~18:50	월~금		
중국어(초급A)	07:00~08:10	월수금	요령 송학성	8만원
중국어(초급B)	18:00~19:10	월수금		
중국어(중급A)	07:00~08:10	월수금		
중국어(중급B)	18:00~19:10	월수금		

과목	강의시간	강의요일	강사	수강료
TOEIC(A)	09:00~09:50	월~금	이기한	8만원
TOEIC(B)	17:00~18:00	월~금		
아카데믹 TOEFL(A)	09:00~09:50	월~금	박정재	8만원
아카데믹 TOEFL(B)	10:00~10:50	월~금		
아카데믹 TOEFL(C)	17:00~18:00	월~금	박준호	8만원
영어청취(A)	07:00~07:50	월~금		
영어청취(B)	08:00~08:50	월~금		
영어청취(C)	09:00~09:50	월~금		
영어청취(D)	16:00~16:50	월~금		
영어청취(E)	17:00~17:50	월~금	이윤옥	8만원
일본어(초급A)	07:00~08:10	월수금		
일본어(초급B)	18:00~19:10	월수금		
일본어(중급A)	07:00~08:10	월수금	김시선	8만원
일본어(중급B)	18:00~19:10	월수금		

대학졸업자를 위한 취업대비 영어 특별 프로그램

- ▶ 개설기간: 1998년 6월 5일 ~ 7월 2일(4주간)
- ▶ 수강료: 5만원(총 3과목)
- ▶ 구비서류: 졸업증명서(1통), 반명함 사진(1장)

과목	강의시간	강의요일	강사	모집인원
TOEIC 실전문제 / 영문법&독해 / 영어청취(L/C)	10:00~12:50	월~금	이기한/박정재/박준호	50명

재외동포 및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 여름학교 프로그램

- ▶ 개설기간: 1998년 7월 13일 ~ 8월 7일(4주)
- ▶ 수업기간: 오전 9:00~12:00(한국어 수업)
- 오후 1:00~3:00(한국 문화특강 및 한국어 연습)
- ▶ 수강료: 742,000원 (현지학습비 100,000 포함)

국제 교육원

경희교우회 정기총회

서울시 교육청 산하 경희출신 교직원들의 모임인 경희교우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교직에 계시는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1. 일시: 1998년 6월 19일(금) 오후 6시 30분
2. 장소: 경희대학교 학생복지회관 3층 (음대 옆건물)

- 문의사항: 경희고등학교 행정실장 김기봉 (Tel: 966-4059, 966-6402)

경희교우회

여러분을 기다리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 우리 교회는 병원과 학원 선교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 우리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6: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화요일예배(본관13층동양방) 오후 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중환자를 위한 병동금요예배 오후 4:30

성지에서 온 교회

담당목사: 배태영(원내전화 8094)
경희의료원 본관 6층(Tel: 958-8094, 966-4812)

1999년 개교50주년 행사 자원봉사자 모집

경희가족 모두, 내가 먼저!
개교50주년, 우리가 빛내겠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나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개교50주년(1999년)을 맞이하는 경희대학교는 역동의 시대에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고자 힘찬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희앞에 열려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향해 가슴을 열고 경희의 미래를 그려봅시다. 경희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대상	단체참여자: 동아리별 / 학과별 / 교동문회별 / 기타 개별참여자: 재학생 및 휴학생, 동문, 학부모 등
활동내역	안내, 의전, 행사진행, 명예봉사, 홍보예술분야, 봉역 등
신청안내/접수	신청서(소정양식)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본관1층) 961-0931~2 각 단과대학 교무과에 비치
신청기한	1998. 5.30 까지
활동기간	1998. 6 ~ 1999. 5 기간 중 정기적 활동 또는 행사별 참여
비고	· 사회봉사 학점인정 예정 · 활동내용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 및 기념품 지급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Tel: 961-0931 ~ 2 Fax: 961-0906